

영천시, 마을조합 기초교육 실시..."완산뜨락 모델, 전국에 알린다"

✎ 김진태 기자 | ⓒ 승인 2025.05.11 14:10

별무리아트센터·상상창고 운영 사례 공유...전국 조합원 40명 참여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가 지역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공=영천시) 2025년 상반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기초교육

시는 9일 전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기초교육'을 완산뜨락 별무리상상창고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실무 지식과 내부 규범 등을 전달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자생력 있는 마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영천시가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가운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별무리아트센터와 상상창고(카페 스타코)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난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제5회 '미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실버인재센터, 주민소통방 등 실질적 성과가 입증된 공간 중심의 현장 견학과 더불어, 완산뜨락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완성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며 "완산뜨락 사례처럼 지역맞춤형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기자 n2000@daum.net